



심장병치료, 새로운 치료법 개발

심장에 영양보급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관상동맥에 여러층 쌓인 콜레스테롤을 혈관의 내측에서 직접 깎아내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 임상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허혈성심질환으로 총칭되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은 관상동맥이 막힌다거나 좁아지는 것이 원인. 지금까지의 치료법은 관상동맥의 협착부를 풍선을 부풀려서 넓히는 풍선요법이나 협착부에 바이파스혈관을 부치는 외과수술 등을 사용해 왔지만 이 새로운 치료법은 미세한 관을 사용, 혈관벽이 굳어 풍선요법으로는 넓힐 수 없는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혈관을 막고 있는 물질을 그대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만이 아니고 동맥경화의 원인해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새로운 치료법은 동맥절개술(Arterectomy)라고 불린다. 동맥절개술(Arterectomy)는 안쪽에 카타가 붙은 『칼집』을 선단부에 부착한 미세한 관으로, 이것을 대퇴부의 동맥으로 넣어 의사가 엑스선연속혈관촬영장치의 영상을 보면서 칼집부분을 관상동맥의 협착부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카타를 매분 2천회 회전시켜 혈관내측에 붙은 콜레스테롤 등을 깎아내고 깎아낸 물

질을 칼집속에 다시 모이도록 장치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3년전부터 임상에 사용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 2천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구가 모두 미국제이며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 이 치료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마약 범죄 최근들어 급증 추세

美國은 마약으로 망할 것이란 말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 터이지만 최근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마약에 연루되어 수감중인 사람은 지난 2년 간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3만 3천명에 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美교도소통계국이 지나 4월 2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전체 수형인구가 현재의 6만여명에서 95년에는 10만명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또 그 때쯤이 되면 마약범죄자가 전체 수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23%에서 69%까지 오를 것이라는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㉞